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이하나¹, 김주현^{2*}

¹한중대학교 간호학과, ²강원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ing factors of Ego-Resilience and Empowerment o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Ha-na Lee¹, Joo-Hyun Kim^{2*}

¹Department of Nursing, Hanzho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간호대학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95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료수집을 진행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 Duncan의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변수들의 평균값은 간호전문직관 3.84±.47, 자아탄력성 3.51±.58, 임파워먼트 2.79±.51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관계는 자아탄력성($r=.455, p<.001$), 임파워먼트($r=.325, p<.001$) 변수 모두 간호전문직관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파워먼트와 자아탄력성 간에도 $r=.696(p<.001)$ 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 모두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탄력성이 임파워먼트보다 간호전문직관에 더 크게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23.0%였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를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제도적인 접근전략의 개발, 반복연구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reports a descriptive correlation to explore the relationship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ego-resilience, and empowerment in nursing students. A convenience sample of 195 subjects were recruited from four colleges. Subsequently, a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1st to 31th 2016.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SPSS 22.0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ean value of the study was as follows: nursing professionalism, 3.84±.47; ego-resilience, 3.51±.58; and empowerment, 2.79±.51.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ego-resilience ($r=.455, p<.001$), empowerment ($r=.325, p<.001$), and nursing professionalism.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ego-resilience and empowerment were found ($r=.696, p<.001$). Hence, ego-resilience and empowerment were determined to be factors that influence nursing professionalism. Ego-resilience was more influential for nursing professionalism than empowerment.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23.0% of nursing professionalism. In conclusion, to increase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and strategies that focus on improving ego-resilience and empowerment.

Keywords : Adjustment, Ego-Resilience, Empowerment, Nursing student, Professionalism

*Corresponding Author : Joo-Hyun Kim(Kangwon National Univ.)

Tel: +82-33-250-8882 email: joohkim@kangwon.ac.kr

Received July 15, 2016

Revised (1st July 29, 2016, 2nd August 3, 2016, 3rd August 10, 2016)

Accepted August 11, 2016

Published August 31,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급격히 변화된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의료소비자의 질적인 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가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1]. 이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사의 전문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한 간호교육의 전문적 질 향상을 권장한다[2].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에서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전문직으로써의 의식적인 견해이다[3].

Kang 등[4]에 의하면 간호사들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지 못했을 경우 간호업무가 하찮고 사소한 것이라는 자의식을 느끼며 갈등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부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에 대한 자긍심 결여, 전문인으로서의 위축감으로 나타나 간호사 개인은 물론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저해하고[5],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의 직업만족, 간호업무 수행능력, 조직몰입의 정도를 높여[6], 이직의도, 소진, 역할갈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7]. 즉, 간호사들이 긍정적이고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을 갖고 있을 때 의료현장의 다양한 전문인과 조화를 이루며 조직의 몰입을 높여 양질의 간호 제공과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6,8,9].

최근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인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적절한 자아통제를 바탕으로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다[10]. 자아가 탄력적인 사람은 새로운 상황에서 오는 긴장 및 인내의 수준을 조절하고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이 가능해진다[10,11]. 특히 자아가 탄력적인 간호대학생은 임상간호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에 좋은 영향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12].

한편, 오늘날 간호교육 현장은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간호사의 기본적인 자질로써 임파워먼트를 요구한다. 간호교육에서의 임파워먼트는 미래의 간호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지식을 공유하여 학업에 대한 의미, 능동성, 자율성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돕는다[13,14]. 또한 개인의 역량력을 증가시켜 문제해결과 업무수행에 반영되고,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수행결과

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다[2,15,16]. 따라서 임파워먼트는 간호대학생에게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선행연구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전문직관 관련 연구는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자아개념, 임상실습만족도, 자아존중감, 간호가치관 등과 같은 변수들 사이에 관계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2,17],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본 연구가 있었다[18].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일개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대상 및 지역을 확대하여 변수들간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으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개념인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를 이겨내 환경에 성공적인 적응을 일으키는 특성을 가지므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한 변수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의 정도와 제 변수와의 관계, 간호전문직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 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임파워먼트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규명한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전문직관,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의 정도와 제 변수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료수집에 참여를 동의한 간호대학생으로 D시와 C시 소재 4년제 간호학과 재학중인 3, 4 학년의 학생이다.

연구 대상자의 표본수는 G-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통계 검정은 Linear multiple regression, 유의수준은 0.05, 검정력은 코헨의 표본 산출시 0.8이상을 권고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0.8, 효과크기는 선행연구의 효과크기 값을 기초로 하여 0.05[19]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총 193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락률 약 5%를 고려하여 205명에게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2.3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년, 간호학과 지원 동기, 교우관계, 성격성향, 전공만족도, 학업성적)을 물어보는 문항과, 간호전문직관,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 간호전문직관 도구

Yeon, Kwon과 Ahn[3]이 개발한 설문지를 기초로 Kim[1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의 하위영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잘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Kim[17]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2) 자아탄력성 도구

Klohn[20]이 개발한 29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를 Park[11]이 번역한 자아탄력성 도구(Klohn의 Ego-Resiliency Scale)로 낙관적 태도 10문항, 대인관계 효율성 8문항, 자신감 9문항, 감정통제 2문항의 하위영역으로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1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3) 임파워먼트 도구

Bolton과 Brookings[21]가 개발하고 Kim[22]이 변안한 임파워먼트 도구로 개인적 능력 16문항, 자기결정성 8문항의 2개의 하위영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 기준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학교의 윤리심의위원회(IRB:2015-11-007-001)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 조사를 시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3월 2일부터 31일까지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연구자가 직접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한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동의서와 설문지를 나누어 주었다. 연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자료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됨을 구두와 서면을 통해 알렸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10분-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이후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식별정보로 암호화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205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 부적절한 응답을 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95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Duncan test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구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77%이었으며, 학년은 3학년이 70.9%, 4학년이 29.1%이었다. 학과 선택 동기는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가 39%로 가장 높았고,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28.1%,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 21.9%, 기타 6.6%, 고교 성적 고려 4.1%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보통 52.6%, 좋음 42.9%, 나쁨 4.5%로 대부분 좋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격 성향은 중간 정도가 46.9%로 가장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보통이 62.8%로 가장 높았고, 만족 31.6%, 불만족 5.6%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성적은 3.5에서 4.0미만이 40.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Table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Items	n	%
Sex	Male	45	23
	Female	151	77
Grade	3rd	139	70.9
	4th	57	29.1
Age	≤21	29	14.8
	22-23	122	62.2
	24-25	36	18.4
	≥26	9	4.5
Motivating for nursing	Consider of high school grade	8	4.1
	Aptitudes and interests	55	28.1
	Recommendation	43	21.9
	High employment	77	39.3
	Others	13	6.6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oor	9	4.5
	Moderate	103	52.6
	Good	84	42.9
Personality Traits	Introvert	38	19.4
	Neutral	92	46.9
	Extravert	58	29.6
	Very Extravert	8	4.1
Satisfaction of major	Non-satisfaction	11	5.6
	Moderate	123	62.8
	Satisfaction	62	31.6
Grade point average score	< 3.0	13	6.6
	3.0-3.5	65	33.2
	3.5-4.0	79	40.3
	> 4.0	39	19.9
All		196	

3.2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평균 3.84(± 0.47)점이었으며,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51(± 0.58), 임파워먼트는 4점 만점에 평균 2.79(± 0.51)점으로 나타났다(Table2).

Table 2.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steem, Ego-Resilience and Empowerment

Characteristics	Mean $\pm$ SD
Nursing professionalism	3.84 $\pm$.47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4.05 $\pm$.51
Social awareness	3.32 $\pm$.77
Professionalism of nursing	3.97 $\pm$.63
Roles of nursing service	3.83 $\pm$.66
Originality of nursing	4.33 $\pm$.82
Ego-Resilience	3.51 $\pm$.58
Optimistic attitude	3.60 $\pm$.62
Efficacy of interrelationship	3.45 $\pm$.66
Confidence	3.52 $\pm$.72
Emotional control	3.27 $\pm$.94
Empowerment	2.79 $\pm$.51
Self-determination	2.73 $\pm$.29
Personal skills	2.96 $\pm$.43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대인관계($F=10.00$, $p<.001$), 전공만족($F=12.17$, $p<.001$), 평균성적($F=2.99$, $p=.03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 검증결과, 대인관계가 좋은 군이, 전공만족도가 높은 군이, 평균성적이 높은 군이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정도는 대인관계($F=11.28$, $p<.001$), 성격성향($F=6.21$, $p<.001$), 전공만족($F=10.03$, $p<.001$), 평균성적($F=5.05$, $p=.0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 검증 결과, 대인관계가 좋은 군일수록, 성격 성향이 외향적인 군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군일수록, 평균성적이 높은 군일수록 자아탄력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임파워먼트 정도는 대인관계($F=9.99$, $p<.001$), 전공만족($F=10.18$, $p<.001$), 평균성적($F=7.14$,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 검증 결과, 대인관계가 좋은 군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군일수록, 평균성적이 높은 군일수록 자아탄력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3).

Table 3.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steem, Ego-Resilience, Empower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rsing professionalism			Ego-Resilience			Empowerment		
		Mean±SD	t or F(p)	Duncan	Mean±SD	t or F(p)	Duncan	Mean±SD	t or F(p)	Duncan
Sex	Male	3.87±0.57	.457 (.648)		3.81±0.57	.464 (.678)		2.96±0.27	.447 (.658)	
	Female	3.83±0.44			3.87±0.55			2.91±0.30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Poor ^a	3.45±0.69	10.00 (.000)	a<b a<c	3.11±0.55	11.28 (.000)	a<c b<c	2.66±0.20	9.99 (.000)	a<c b<c
	Moderate ^b	3.75±0.43			3.37±0.60			2.71±0.31		
	Good ^c	3.99±0.45			3.72±0.47			2.90±0.28		
Personality Traits	Introvert ^a	3.69±0.47	2.41 (.068)		3.21±0.65	6.21 (.000)	a<c,d b<c,d	2.69±0.33	2.28 (.080)	
	Neutral ^b	3.87±0.46			3.50±0.53			2.78±0.30		
	Extravert ^c	3.93±0.47			3.70±0.51			2.86±0.31		
	Very Extravert ^d	3.68±0.59			3.69±0.68			2.84±0.29		
Satisfaction of major †	Non-satisfaction ^a	3.34±0.55	12.17 (.000)	a<b a<c	3.13±0.41	10.53 (.000)	a<c b<c	2.63±0.30	10.18 (.000)	a<c b<c
	Moderate ^b	3.80±0.43			3.41±0.58			2.72±0.29		
	Satisfaction ^c	4.02±0.46			3.76±0.51			2.93±0.31		
Grade point average score †	< 3.0 ^a	3.55±0.46	2.99 (.032)	a<b a<c a<d	3.22±0.50	5.05 (.002)	a<b<c,d	2.67±0.26	7.14 (.000)	a<c a<d b<c b<d
	3.0-3.5 ^b	3.77±0.44			3.34±0.59			2.67±0.26		
	3.5-4.0 ^c	3.89±0.45			3.59±0.58			2.85±0.32		
	> 4.0 ^d	3.94±0.52			3.71±0.48			2.90±0.30		

† : Duncan test

3.4 간호전문직관,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과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 간에는 $r=.455$ ($p<.001$), $r=.325$ ($p<.001$)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임파워먼트와 자아탄력성 간에도 $r=.696$ ($p<.001$)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Nursing Professionalism, Empowerment, Self esteem and Ego Resil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p)	Ego-Resilience (p)	Empowerment (p)
Nursing professionalism	1		
Ego-Resilience	.455** (.000)	1	
Empowerment	.325** (.000)	.696** (.000)	1

* $p<.05$, ** $p<.01$

3.5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과 잔차, 특이값을 진단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인자(VIF) 1.939로 기준치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잔차의

독립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검증을 진단하였다. 잔차분석결과 Durbin-watson 검증치가 2.105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이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이 모두 충족되어 회귀분석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석결과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가 간호전문직관을 설명하는 설명변량은 약 23.0%였다($F=17.67$, $p<.001$). 간호전문직관에 자아탄력성($\beta=0.25$, $p<.008$), 임파워먼트($\beta=0.20$, $p=.010$) 모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자아탄력성이 간호전문직관에 크게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Influence factor	B	β	t	p	VIF
Ego-Resilience	.208	.254	2.679**	.008	1.939
Empowerment	.154	.201	2.513*	.010	1.939
Adjusted $R^2=.23$, $F=17.67$, $p<.001$					

* $p<.05$, ** $p<.01$

4. 논의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의료소비자의 질적 의료 요구가 높아지면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가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1].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사의 전문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간호대학생에게 긍정적이고 명확한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권장한다[2].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의 정도를 조사하고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84로, 간호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Park[2]의 연구에서 평균점수가 3.48, 간호학과 전학년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을 본 Ko 등[23]의 연구에서 평균점수가 3.52로 나타난 점수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3,4학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적 교육을 받는 동안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실무경력을 통해 발달하게 되는데[24], 본 연구의 경우 3,4학년 학생들은 간호 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시기이고, 실습의 시작과 병행을 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간호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간호전문직관 보다는 좀 더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성적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2,23,25]들과 비슷한 결과이다. 전공만족도가 좋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전공에 대한 만족감이 자신의 직업관에 긍정적인 태도를 초래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진 이유 또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학문의 특성,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긍정적 관계를 강조하는 교육내용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이러한 영향이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26]. 즉, 긍정적이고 높은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해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동아리 활동 등의 교우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전략과 교육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사회적 인식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이 간호가 전문직이라는 업무에 비

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사회 전반적 차원이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평균 3.51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Park과 Han[27]의 3.46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대인관계, 성격성향, 전공만족도, 성적이 좋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Park과 Kwon[28]의 전공만족도가 좋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Kim과 Lee[29]의 교우관계, 전공 성적이 좋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높은 성적, 좋은 대인관계와 같은 특성들이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만족과 성취감,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시키고,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자신의 자아탄력성을 높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파워먼트 점수는 평균 2.79로 나타났다. 이는 Hyon[30]의 연구에서 일반대학생의 임파워먼트 점수가 2.61 ± 0.52 로 나타난 것보다는 좀 더 높은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의 임파워먼트 점수가 일반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임파워먼트가 가지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역량력을 통해서 나타나며, 문제해결과 업무수행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수행결과를 얻게 됨으로써 높아진다[15].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비판적 사고 성향, 봉사, 돌봄을 강조하는 간호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임상실습을 하면서 다양한 관계 및 환경을 경험하여 개인의 능력, 창의적인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조사연구가 부족하고, 임파워먼트라는 개념이 개인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추후 재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성적이 좋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 전공만족도가 좋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아진다고 나타난 Choi와 Jung[3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성적이 좋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과 관련시켜 볼 수 있는데, 대인관계와 성적이 좋을수록, 자신이 선택한 전공 만족감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임파워먼트 점수가 높아졌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에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아탄력성이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관련 선행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자아탄력성이 임상수행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속성과,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수행능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한다는 간호전문직관의 속성과 연결시켜 볼 때[11,12], 자아탄력성은 임상수행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쳐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고, 높아진 임상수행능력이 간호전문직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파워먼트는 간호대학생에게 자율성, 통제성 등의 역량을 증가시켜 개인의 문제해결과 업무수행에 반영되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수행결과를 이끌어내는 속성을 가지는데[15] 이러한 속성들이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시키며, 간호대학생들에게 좋은 간호사로서의 성장을 증진시켜 긍정적이며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임파워먼트, 자아탄력성이 간호전문직관의 예측변수로 영향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들 예측변수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탄력성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과운영 및 교수학습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과운영 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과 관련하여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대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아탄력성과 임파워먼트 간호전문직관의 관련성 연구나, 조사 연구 등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추후 재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간호전문직관의 발달은 간호실무현장에서 일어나는

전문직의 필수적인 부분이므로[32,33]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정립과 발달을 위한 간호교육의 재조명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된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를 비롯하여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이를 반영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D 시와 C시 소재 4년제 간호학과 재학중인 3,4 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규명하여 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자아탄력성, 임파워먼트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과운영 및 교수학습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교과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에서 이러한 영향요인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는 관계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제한한다.

한편, 본 연구는 수업연한 4년제 교육과정 두 개 학교의 간호학과 학생 중 3,4학년만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제와 학년에 따른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추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를 시도하고,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J. Choi, N. S. Ha,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 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5, no. 2, pp. 54-63, 2009.

- [2] H. J. Park,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227-236,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2.227>
- [3]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 1091-1100, 2005.
- [4] H. S. Kang, K. J. Cho, N. H. Choe, W. O. Kim, "Reconstruction of Professional Identity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2, no. 3, pp. 470-481, 2002.
- [5] K. B. Kim, H. S. Kim, K. H. Lee, "Clinical Nurses Professional Conflic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1, no. 3, pp. 492-505, 2001.
- [6] Y. M. Kwon, E. 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3, no. 3, pp. 285-292, 2007.
- [7] J. I. Hwang, F. Lou, S. S. Han, F. Cao, W. O. Kim, and P. Li, "Professionalism: the major factor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among Korean and Chinese nurses",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vol. 56, no. 3, pp. 313-318, 2009.
DOI: <http://dx.doi.org/10.1111/j.1466-7657.2009.00710.x>
- [8] S. S. Han, M. H. Kim, E. K. Yu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4, no. 1, pp. 73-79, 2008.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08.14.1.073>
- [9] J. A. Seong, E. Y. Yeom, Y. S. Do, "Image of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1, pp. 798-808,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1.798>
- [10] E. C. Klohn,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pp. 1067-1079, 199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0.5.1067>
- [11] H. J. Park, "Perceived stress, coping, depression and ego-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1997.
- [12] D. J. Kim, J. S.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244-254,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244>
- [13] T. Velthouse, "Cognitive Element of Empowerment: An interpretative Model of intrinsic Task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5, 1990.
- [14] C. H. Gibson, "A concept analysis of empower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23, no. 2, pp. 354-361, 1991.
DOI: <http://dx.doi.org/10.1111/j.1365-2648.1991.tb01660.x>
- [15] T. C. DiLiello, J. D. Houghton, "Maximizing organizational leadership capacity for the future",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 21, no. 4, pp. 319-337, 2006.
DOI: <http://dx.doi.org/10.1108/02683940610663114>
- [16] Y. S. Kang, Y. J. Choi, D. L. Park, I. J. Kim,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6, no. 2, pp. 143-151, 2010.
DOI: <http://dx.doi.org/10.1111/jkana.2010.16.2.143>
- [17] M. H. K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view of nursing as professional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Kyunghee University of Korea, Seoul, 2008.
- [18] E. H. Kim, "Relationships of Nursing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and Empower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 4, no. 1, pp. 532-541, 2016.
DOI: <http://dx.doi.org/10.15205/kschs.2016.4.1.532>
- [19] H. J. Cho, J. U. Lee, "A Study on Self-Esteem, Nursing Professional Valu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 Diploma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2, pp. 8498-8508,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2.8498>
- [20] E. C. Klohn,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pp. 1067-1079, 199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0.5.1067>
- [21] B. Bolton, J. Brookings, "Development of a measure of intra personal empowerment",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43, no. 2, pp. 131-142, 1998.
DOI: <http://dx.doi.org/10.1037/0090-5550.43.2.131>
- [22] H. S. Kim, "Mediator Effect of Empowerment on Readiness for Self-sufficiency of Poor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6, no. 3, pp. 135-157, 2004.
- [23] J. E. Ko, M. H. Kim, E. J. Kim, J. H. Kim, J. E. Eom, H. A. Lee, "The relation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the Nursing Academic Associ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vol. 45, no. 31, pp. 29-44, 2011.
- [24] S. H. Ko, B. Y. Chung,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0, no. 3, pp. 335-344, 2004.
- [25] Y. S. Ham, H. S. Kim,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ticipating graduation according to nursing educational system",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9, no. 3, pp. 363-373, 2012.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3.363>
- [26] J. Block,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pp. 349-361, 199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0.2.349>
- [27] W. J. Park, J. Y. Han, "The effect of ego-resilience, stress coping styles, teaching, effectiveness, and family support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by AMOS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365-375,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3.365>

- [28] Y. S. Park, Y. H. Kwon, "Ego Resilienc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3, pp. 341-350, 2013.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3.43.3.341>
- [29] D. J. Kim, J. S.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244-254,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244>
- [30] C. S. Hy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mpower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Regulation and Happiness", Unpublished docto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2010.
- [31] Y. H. Choi, C. S. Jung,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Self-efficacy and Impower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604-4613,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604>
- [32] M. J. Schank, D. Weis, "Service and education share responsibility for nurses' value development", *Journal for Nurses in Staff Development*, vol. 17, no. 5, pp. 226-233, 2013.
DOI: <http://dx.doi.org/10.1097/00124645-200109000-00002>
- [33] Y. I. Han, "Relationship between Core competencies,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ployment strategie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3 pp.144-152,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3.144>

김 주 현(Joo-Hyun Kim)

[정회원]



- 1980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1995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기초간호자연과학

이 하 나(Ha-na Lee)

[증신회원]



- 2013년 8월 : 강원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16년 8월 : 강원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한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 정신간호학